400여년 만에 남편의 신주에서 만난 여류시인 옥봉이야기

성지오[1)]

Ⅰ. 머리말
Ⅱ. 시인 옥봉의 흔적- 조원의 묘를 찾아
  1. 이 사람이 아니면 시집을 아니 가겠사옵니다.
  2. 그대를 사랑하는 일이 바로 시 이옵니다.
Ⅲ. 옥봉, 조원의 품으로
Ⅳ. 맺음말

Ⅰ. 머리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쯤인 2007년 가을, 향토사 일로 함께 활동하는 이동륜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다. 시조회원으로 함께 활동하는 계명대 이종문[2)] 교수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는데, 조선시대 어느 사람의 묘를 한번 찾아 봐 달라 하였다는 것이다. 내용인즉 여류시인 옥봉의 흔적을 찾아야는데 그러려면 파주 혜음령고개 아래 조원이란 사람의 묘를 찾아가 보자는 것이다. 그의 소실 옥봉은 시를 짓는다는 이유로 쫓겨났다가 시를 몸에 감고 한강으로 떨어져 죽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쫓겨나서도 “꿈속에도 길이 있어 그대 집 앞을 오간 것을 헤아린다면 집 앞의 자갈길이 모래알이 되었을 거”라는 시를 남겼다고 한다. 수절을 하다 죽었다는 열녀이야기는 들어봤어도 그렇게 지독한 사랑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

혜음령 고개는 고려 때는 남경으로 조선 때는 북경으로 가는 연행 길의 역할을 하던 곳이다. 마침 나의 언니가 그 근처에 살고 있으니 임천 조 씨네 묘를 물어보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형부는 조씨네라면 혜음령 고개 아래에 큰 비석 있는 것을 보았다며 가 보자 하였다. 가 보니 큰 비석이란 것은 신도비로서 조원의 아들 조희일의 것이었다. 으흠 금방 찾겠는 걸 하면서 여기저기 묘가 보이는 대로 찾아 보았다. 그런데 조원의 이름은 눈에 띄지 않고 가을의 짧은 해가 금방 어둠을 몰고 왔다.

1) 파주향토문화연구소 부소장/ 파주역사로 동화쓰기 대표/ 파주문협 회원
2) 이종문, 李玉峯의 작품으로 알려진 漢詩의 作者에 對한 再檢討, 한국한문학회, 한국한문학연구

2009년 7월 5일 조원묘와 비석을 찾다.

2009년 7월 7일 다시 찾아가다.

다음에 다시 오자하고 와서는 급한 일도 아니어서 날들이 많이 흘렀다.

2009년 여름 이번엔 혜음령 아래 가겟집을 가보라하여 찾아갔다. 그곳에서 후손 중 한 집을 알려 주었고 임천조씨인 조기영님의 안내로 묘를 찾아 갔다. 수풀이 무성한 가운데 조원趙瑗의 묘라고 쓰여진 비석이 보였다. 땀을 줄줄 흘리고 갔는데 더위도 잊은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기뻐 어쩔줄 몰랐다.

며칠 후 그곳을 다시 갔을 때 후손 중 조진석이란 분이 같이 나왔는데 나중 이분의 역할이 얼마나 막대했는지 거기 잠들어 계신 영령들이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임천 조 씨네 500여년을 내려온 선산들이 헐값에 넘어가는 것을 재판으로 막아냈고, 구천을 떠돌던 시인 옥봉의 묘단과 묘비가 만들어지고 신주에 함께 모셔지는 일들을 하게 된다.

힘들게 만난 그들의 일생을 보면 무슨 운명의 만남일까 해진다. 스스로 남자를 택했고 그 남자를 사랑하는 일이 바로 시이고 운명이라며 자기를 불살랐던, 그러다가 결국 하나의 글이 빌미가 되어 그 남자에게서 쫓겨난, 그러다가 사백여년의 시간을 돌고 돌아 자신이 쓴 시로 인해 남편의 신주 옆에 함께하게 된 여인! 이런 기막힌 운명의 만남을 무어라 해야 할까.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작은 역할로 세상을 떠난 지 400여년이 넘은 후, 한 여인이 남편의 품으로 돌아가 신주에 함께 오른 이야기를 써 보기로 하겠다.

Ⅱ. 시인 옥봉의 흔적- 조원의 묘를 찾아

이동륜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여류시인이던 옥봉은 조원의 소실이었고, 조원과 결혼하는 조건이 시를 쓰지 말라는 것이었고, 남편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이유가 그녀가 쓴 시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어떤 남자이며 그 여인은 또 어떤 여인이란 말인가. 그런데 그녀의 흔적을 찾으려면 그녀의 남편이었던 조원의 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옥봉은 조선 선조 때의 여인이다. 부친 이봉의 서녀로 태어났고 어머니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서녀였지만 부친의 사랑 속에 글을 접하며 자랄 수 있었고 부친이 밥 떠먹이듯 조금씩 던져주는 글이 나날이 발전을 해 나갔고, 시를 접하게 해 주었더니 시에 담긴 의미까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시집을 갈 나이가 되어도 뜻을 비치지 않던 그녀는 당시 진사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명성이 자자하던 한 남자의 소실로 가겠다고 한다.

대개 혼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남자의 집에서 여자의 집으로 사주단자가 가면서 여자의 집에서는 혼인을 받아들인다는 허혼을 하여 날짜를 잡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그런데 여기 그런 습관의 틀을 벗어나 여성이 남성을 선택하는 일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그런 일은 아주 드문 일 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한 여인이 시를 썼다는 이유로 쫓겨 났다고 한다.

옥봉이 그 님을 만나 산 기간은 얼마나 되었을까? 사랑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헤어진 것일까? 아니면 조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 옥봉은 어떤 여인이고 조원은 어떤 세계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일까 글을 써보려니 궁금증이 꼬리를 물었다.

옥봉 이야기를 접한 무렵 소설 몇 권이 이미 나와 있었고, 그 후 옥봉의 시는 한시 연구자들과 논문으로 꽤 많은 연구가 되어 있다. 게다가 지봉 이수광은 [지봉유설][3]에서 이미 밝힌 이야기였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 이었다. 옥봉 시인이 살았던 때는 한 집안의 몰락을 상징하는 열녀문이 본 받아야할 여성의 표상인양 받들던 시절의

3) 지봉유설에는 조원의 아들인 승지 조희일은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원로대신으로부터 시집 한권을 받는다. 놀랍게도 이옥봉 시집이었다. 옥봉은 부친 조원의 소실로 대신이 들려준 자초지종은 이러했다. '40여 년 전 바닷가에 괴이한 주검이 떠돌아 사람을 시켜 건져 올리도록 했다. 주검은 종이로 여러겹 말려있었고, 안쪽 종이엔 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시가 빼어나 책으로 엮었다. 말미엔 '해동조선국 승지 조원의첩 이옥봉'이라고 적혀있었다는 것이다. 옥봉의 몸은 쓴 시를 두루마리로 온몸에 두르고 동아줄로 칭칭 감은 채 바다에 몸을 던졌고 그 시신이 조류에 밀려 중국 하얀가에서 발견된다. 그 시집이 중국에 갔던 조선의 사신들에게 전해져 조선에 들어왔다. 이수광은 전주이씨 집안으로 옥봉과 동시대의 인물이며 당시 옥봉의 文才는 시중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접반사로 중국의 사신들을 만난 조원의 아들을 통해 이 사연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이다.

1. 조원- 이 사람이 아니면 시집을 아니 가겠사옵니다.

조원은 1544년 3월 12일(중종 39) 조응공과 여흥 민 씨 사이의 삼남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그는 세상에서 52년을 살다가 1595년(선조 28)에 세상을 떠났다. 임천 조 씨로 시조는 조천혁이고, 성종과 명종 대에 전적. 군자감정 이조 참의겸 승문원 검교를 지낸 조익의 손자이다. 조원의 호는 운강, 여섯 살 때부터 [효좌태충부]와 [동국삼도부지]를 지어 이야기가 되곤 했다.

7세부터 서엄에게 글을 배웠는데, 하루는 그 스승이 준 복숭아를 먹지 않고 소매 속에 넣기에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돌아가 어버이께 드리고자 합니다.” 하였다. 스승이 그 뜻을 기특하게 여기고 시를 한번 지어보라 했더니“반도가 가을에 정 히 익었는데 어떻게 해서 내 어머니께 바칠거나, 원컨대 서왕모가 되어 난조를 타고 날아 갈거나”하였을 정도로 어려서부터 효심이 깊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 집안의 가치관이고 내력으로 삼고 싶은 부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8세 되던 해에 자식이 없던 숙부 응관에게 양자로 갔는데, 얼마 후 부친이 돌아가셨고 양 어머니인 곽 씨와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 민 씨에게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두 분의 어머니를 모시며 힘든 면도 있었을까, 나중 조원이 장가를 들고 세월이 흐른 후 옥봉이 소실로 들어오기를 청했을 때 단번에 거절을 한 것을 보면 학자의 단정한 성품일수도 있겠으나, 어머니 두 분 사이에서 쉽지 않은 면을 겪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18세 되던 1561년 더 깊은 공부를 위해 조식 문하로 들어간다. 한양에서 지리산 멀리 간 이유는 조식이 조원의 장인인 이준민의 외삼촌이기 때문이다. 남명은 조원을 처음 보고 “참 아름다운 선비다”라고 칭송했다하니 맑고 귀티 나는 학자로서의 모습을 지닌 한양도령 이었던 것 같다.

스승을 찾아가 배운 3년 후인 21세 되던 1564(명종 19)년 진사시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같은 해 율곡 이이는 생원시에서 1등을 하여 장원 동방同榜이 된다. 그때 차점으로 합격한 사람들이 유성룡, 이원익, 심충겸 등 이어서 그 해에 뽑힌 사람들이 역사에 많이 오르내리는 인물이 된다. 조원은 그때부터 세간의 칭송과 함께 학자들 세계에 오르내리게 된다. 그렇게 소문이 자자하자 같은 하늘아래 살고 있는 옥봉도 그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옥봉의 부친이 내로라하는 문사들과 교류를 하였던 탓에 여느 여인들과는 다른 세계를 접하며 자라던 옥봉이었다.

조원이 진사시에 장원으로 합격을 하자 그 제자가 너무 자랑스럽던 스승 조식은 검병劒柄이라는 오언율시를 칼자루에 새겨 주었다.“불속에서 크고 흰 칼을 뽑아내니 서릿발이 넓고 차가운 흐름을 가른다. 견우와 북두성 떠있는 넓은 하늘에 정신은 놀아도 칼날은 놀지 않는다.” 북두성과 견우성 떠있는 넓은 하늘에 정신은 여유롭되 칼날은 놀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평소 성성자라는 방울을 차고 다니며 흐트러진 마음을 놓지 않던 조식은 제자에게 늘 놀지 않는 칼날을 지니고 다니듯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 한 것이다. 그런 스승의 정신을 받아서일까 조원은 그 스승의 기대이상으로 단정하고 깔끔하며 이성적인 학자로 평생을 살았다.

이어 1572년(선조5) 증광별시 문과에 병과 제일인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배속되었고, 그 후 한림에 천거되고 이어 사간원 정언으로 승진하였다. 당시 사간원 허엽과 김효원 등이 어떤 사건으로 영의정 박순을 추고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조원이 “사간원에서 대신을 추고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이들이 율법을 어겼음을 탄핵하였다. 스승의 정신을 물려받은 조원은 이미 강직한 성품으로 관직에 임하고 있었다.

더욱이 32살인 1575년에는 정언이 되어 진짜 바른말을 해도 되는 자리에 있었다. 그러던 조원이 당시 명종의 비 인순왕후 심 씨의 동생인 심충겸을 이조정랑에 천거하였는데, 이는 유능하고 깨끗한 선비들의 진로를 터놓기 위함이었음에도 이조정랑은 문관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로 왕실의 외척이 그런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며, 김효원 등이 극구 반대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결국 조원의 뜻대로 심충겸을 발탁하여 조원에 대한 여론이 분분하였다. 그러나 그 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심충겸이 큰 공을 세우니 조원의 사람 보는 안목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원은 평생 김효원 등의 반대파에게 두고두고 시달리게 된다. 특히 사림 분열의 발단이 되던 때, 동인에는 주리철학을 펼친 이황과 조식의 제자들로 이루언진 영남학파가, 서인에는 주기철학을 주장했던 이이와 성혼을 추종하는 기호학파 인물들이 있었다. 그러나 동인과 서인의 양자를 위해 노력했던 이이는 어느 쪽에도 논의와 행동에 치우침이 적었음에도 교우관계 때문에 동인에게 배척을 받던 때였다. 그러나 서인을 등에 업고 싶은 선조는 언제나 율곡 편 이었다. 심지어“당이 있다면 나는 율곡 당에 들것이다”하고 노골적으로 율곡의 편을 들자 서인에 속하지 않은 조원은 시끄러운 당쟁의 시대를 살아내야 했다.

벼슬을 하다보면 좋은 시절만 있는건 아니지만 조원은 관직생활이 평탄치 못했다. 조원이 활동하던 때는 특히 붕당정치의 발단이 시작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정언과 이조전랑을 지내던 조원은 관직의 꽃이라 부르던 전랑[4]에 재임되지 못하였는데, 율곡

4) 이조의 정랑과 좌랑을 통칭하는 자리로 삼사인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간관들을 천거하는 막강한

이 대제학으로 있으며, 조원을 내보내고 양사를 교체시켜 해결하니“공의가 상쾌하다 평하고 사론이 흡족하다”는 말들이 돌았다. 결국 조원은 이조전랑에는 재임되지는 못하였으나 홍문관에 선임되고 이어 이조좌랑으로 옮겨 공평한 인사로 선비들을 넓게 끌어 들였으나 그는 사림 분열의 한가운데 있었다.

급기야 신진사류들의 당쟁이 치열해지면서 조원은 외직으로 밀려나야 했다. 처음으로 외직인 괴산군수로 나가는 자리였던 만큼 그 착잡함이 컷을 것이다. 이때 조원의 나이가 35세였으며 옥봉이 따라가 보살펴주고 의지가 되어 주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조원이 옥봉을 만난 것은 35세 이전인 33세 이조좌랑 무렵일 것으로 보며, 조원이 52세로 세상을 떠나기 몇 해 전 옥봉을 내 보냈다 했으니 그들은 적어도 17, 18년은 함께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괴산군수로 부임해가는 조원에게 주는 옥봉의 시 한편을 들어보면“낙양의 재자 가의賈誼는 벼슬 싫다고 거짓으로 미친 척 했다는데, 한번 임금 곁을 떠났다 하지만 장사의 태부가 될 줄을 누가 알았으랴.”하면서 남편에게 힘을 주려한 것을 엿 볼 수 있다. 비록 밀려서 임금 곁을 떠나지만 남편이 더 큰 사람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기개로운 시를 써 주는 옥봉, 조원이 걸어가는 길을 역사 속에서 찾아내 큰 틀로 바라봐주는 옥봉은 얼마나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던가.

그러다가 홍문관으로 다시 돌아와 양사(사간원과 사헌부)를 옮겨 다니며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그러나 다시 당쟁으로 1583년 40세의 나이로 삼척부사, 46세 때 성주목사로 또 다시 외직으로 밀려나야 했다.“좌천의 성격이 짙은 자리였지만 언제나 그렇듯 운강은 표정하나 말씨하나 함부로 내뱉지 않고 받아 들였다”고 은미희는 소설[5]에서 조원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만큼 조원은 조용하고 진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옥봉은 이렇게 외직으로 나갔을 때가 가장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고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옥봉의 아버지 이봉이 본처의 친정아버지인 이준민에게 말을 하여 허락된 관계아래 소실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전의 이 씨와는 본처와 소실의 관계였을 테니 말이다. 외직에서의 한가한 시간을 옥봉은 즐길 줄 알았다. 누군가의 시를 읽고 내 것으로 차운해서 쓰기도 하고 남편과 대화상대로서 오롯한 시간을 갖기도 한다. 성격이 단정하여 풍류의 기질이 적던 조원에겐 옥봉의 그런 내조의 보살핌은 다

권한이 있었던 자리로 이들만이 관리를 천거할 수 있었고 자신의 후임을 추천할 수 있어서 그 권한이 매우 컷다. 정직과 정의를 지키고 직언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자리였으며, 이조판서도 이에 개입할 수 없었다.

5) 은미희 1960년 목포에서 태어나 [다시 나는새],[비둘기집 사람들], [소수의 사랑], [바람의 노래]에 이어 2009년 조원과 옥봉의 사랑을 다룬 [나비야 나비야]를 썼다.

른 세계를 채워주었을 것이다.

성주목사를 끝으로 47세 전후 아무런 벼슬도 제수 받지 못했던 기간이 있었다. 당쟁이 점점 더 심해져 갔기 때문이다. 든든한 반석이자 따듯하던 인왕산 아래 집은 폭풍전야와 같은 기류가 흘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몇 년 전이다.“벼슬살이를 하는 남자들에게 있어서 관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의 끝, 세상과의 단절을 뜻한다. 극심한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폐인처럼 지내는 날이 이어졌고 밤에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고 장정희는 [옥봉][6]에서 표현 하였다.

동인이 잠시 판권을 잡았다가 서인 세상이 되었다. 선조는 마지막에 가서는 늘 서인 편을 들었다. 거기다 정여립의 모반사건이 발생하자 동인은 가차 없이 죽임을 당했다. 그 시절은 옳고 그름보다 이익이 같은 무리끼리는 뭉치고, 그렇지 않은 무리는 가차 없이 내쳐지는 무서운 세상이었다. 외모가 누구와 닮았다고 죽이고, 반대하는 무리들 인물의 죽음에 눈물을 보이는 것을 보았다는 이유로도 죽였다. 바로 기축옥사이다. 이는 정여립의 역심을 역 이용한 정치적 사건으로 당쟁이 빚어낸 비극중의 비극으로, 내치고 싶은 인물은 어떤 이유를 대서든 죽어 나갔다. 그런 회오리는 끝나고 나서도 서로의 의리와 인격을 내세우며 비난과 힐난을 하며 시끄러웠다. 같은 편들끼리 또 다시 갈라지고 뒷 담화를 해대는 불신과 원망의 날들이 이어졌다.

조원은 문을 닫아걸었다. 노심초사 견뎌온 날들의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 비관할 틈도 없이 언제 그런 표적이 될지 몰랐다. 그래서 더 두려운 세상이었다. 조원은 냉정한 이성으로 자신을 지켰고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무섭게 자신을 단근질해 나가는 날들이었다. 조마조마한 날들이 적막 속에 흘러갔다.

그런데 운명의 신이 그들을 갈라놓으려고 그랬을까? 혼인하는 조건이 시를 쓰지 않겠다고는 하였으나 그간 짧지 않은 세월을 함께하며 옥봉의 시 세계를 때론 칭찬하고 때론 생각을 물으며 함께 하던 조원이었는데,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질 것 같은 때에 그들을 갈라놓는 일이 생기고 만 것이다.

온 집안이 집을 비운사이 파주에 산다는 묘지기의 아내가 남편이 소도둑으로 몰려 옥에 갇혔다며 찾아 온 것이다. 그것은 옥봉이 볼 때 억울한 누명으로 파주목사가 말 한마디만 해주면 풀려날 일 이었다. 그래서 고사에 빗대어 시 하나를 써 주었다. 그것이 옥봉의 절명시가 될 줄을 어찌 알았으랴. 어쨌든 산지기는 풀려났고, 파주목사가 찾아왔다.“그간 우리 관아에 소를 훔친 죄로 잡혀 온 사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내

6) 2020소설을 낸 작자 장정희는 “처음 시를 몸에 감고 빠져 죽은 여인의 이야기를 접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일었다고 했다. 그게 사실이든 상상이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소설을 시작한 게 십몇 년 전이라고 했다. 자료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쓰면서도 긴가민가 싶어 잡았다 놨다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보내느라 그랬다고 한다.

가 소장을 가지고 왔소 그 내용을 보니 이런 시가 적혀 있었다.”며 고개를 외로 비튼 채 조원을 바라보았다. 평소 너나없이 지낼 때가 언제였냐는 듯 거만한 태도로 “공의 소실이 써 줬다는~ 공께서 딴 사람의 재주에 맡겨 우리를 탓 하셨다면 .....우리들이 늦게 알게 된 것이 유감이오.”하면서 마치 범죄를 캐는 심문자의 얼굴로 조원을 바라보다가 말머리를 돌려서 갔다. 조원은 그 말을 몇 번이고 되 뇌었다. 그의 비아냥거리던 말이 귓전을 어지럽게 맴돌았다. 때가 어느 때인데 소실인 아녀자를 이런 일에 나서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조원은 진정을 하려해도 불안의 그림자를 지울 수 없었다. 정계의 소용돌이는 너무 무섭게 변하여 하루하루 전전긍긍 살아내고 있는데 그녀의 경거망동한 글재주가 관원의 구실에 오르내려 뭔가 표적이 될 것 같았다. 살얼음 정국에 납작 엎드려 있어도 부족 할 판에 죽은듯 지내다 재기를 도모해야 할 판에 닥쳐올 회오리가 눈에 보이는 듯 보였다. 이런 일을 예견이라도 한 것일까 결혼하는 조건이 글을 쓰지 말 것을 당부했던 일들이 떠올랐다. 불안의 그림자를 지울 수 없었다.

사람은 사랑할 때의 좋은 점이 헤어질 때는 단점으로 작용한다. 옥봉이 조원의 학문의 세계로 닦여진 냉철하고 이지적인 모습에 끌렸을 수도 있는 것이 끝날 때는 그것이 그 사람의 칼날이 된다는 것을, 바로 그 날카로움에 베일 수 있다는 것을 옥봉은 몰랐다. 아니 알았다. 알았어도 옥봉이 조원을 좋아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을 원하는데 어찌할 것인가. 옥봉은 그런 조원에게 마음이 끌렸고 십여 년 넘게 살면서 끌리고 떨리는 가운데 살아왔는데 그러나 그때 조원에게는 한 가문을 이어가고 지켜 내야 할 일들이 더 중요하게 와 닿았다. 조원은 눈을 감았다. ‘단호하게 끊어내야 빌미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정국은 지금 뜬소문만으로도 사람들을 죽이고 내 모는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가 아닌가.’ 아직까지 살아온 조원의 모습이 아니었다.

부부로서의 인연의 끈이 엮어져 살던 젊었던 어느 날 조원이 별당에 둘렀던 적이 있다. 두메산골에 사는 한 선비가 책력을 빌려달라는 편지를 보내왔다며, 책이 흔한 것도 아니고 남에게 빌려줄 만한 책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없다고 하자니 박정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고 없는 물건을 만들어 보내줄 수도 없는 운강으로서는 난감한 일이었다. 조원의 고민을 읽어낸 옥봉이 말했다.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옥봉의 말에 운강이 환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 앞으로 지필묵을 내밀었다.
“그대는 어찌 남산의 스님에게 빗을 청하지는 않으시오?”
옥봉이 붓을 내려놓자 운강이 미소를 지었다.

“그대의 재치가 나를 살리는 구려~”
“제가 가진 미천한 재주가 서방님을 곤궁에서 구했다니 저도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운강이 애틋한 시선으로 옥봉을 바라보았다. 미세한 떨림이 교차되는 순간이었다. 시를 쓰지 말라고 했지만 옥봉이 쓰는 시를 애정 어리게 봐 주기도 했고 지인들 앞에서 자랑하듯 불러 시를 듣기도 하던 운강이었다. 그런데 지금 조원의 마음은 멀리 떨어져 나가고만 있었다. 한 집안을 살리기 위해 소실을 내치기로 한 것일까? 아니 잠시만 그렇게 지내야 한다고, 그러다가 세상이 좀 조용해지면 다시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스승 조식이 써 준‘정신은 놀아도 칼날은 놀지 않는다.’는 놀지 않는 칼날은 왜 하필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던 옥봉에게 결행을 해야 했을까. 십수 년을 남편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옥봉은 그렇게 남편으로부터 내 쳐 진다.

옥봉을 내쳐서 인지 당파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학자답게 꼿꼿하게 살아온 사람임을 인정받아서인지 조원은 사헌부 사간원으로 발탁이 되었다. 세상에 다시 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럴수록 옥봉과의 날들을 다시 이어가서는 안 되리란 판단을 한 조원은 옥봉을 부르지 않았다. 그들의 인연이 그렇게 끝이 나려고 그랬는지 나라의 국난,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그런 와중에도 50세 되던 해 승정원 동부승지를 제수 받았다. 그러나 전쟁중에 눈앞에서 아들 둘이 죽어가는 것을 본 조원은 상심이 컷 던지 52세로 세상을 떠난다. 그때 이미 옥봉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서로의 안부를 물을 때도 아니었고 자기 목숨하나 간수하기에도 힘이 든 때였다. 두 사람 사이의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물을 정황도 아니었다.

조원네 집안은 그를 기준으로 셋째아들 조희일, 손자 조석형, 증손 조경망, 고손 조정만 까지 5대에 걸쳐 진사시에 장원으로 급제하는 명문가 집안이 된다. 조원이 살던 집터는 효자동으로 현 경복 고등학교이며, 이 글을 쓰기위해 찾아가 보았을 때, 커다란 느티나무 한그루가 서있어 반겨주었고, 학교터를 닦다가 땅에서 나왔다는 운강대[7] 라고 쓴 돌이 그들이 여기에 살았음을 증명해 준다. 조원의 집터는 북악과 인왕 사이에 있어 풍광이 좋아 나중에 근처에 살던 겸재 정선이 산수도를 즐겨 그리기도 했다던 자리이다. 그곳 운강대 터에서 군자감정과 이조참의를 지낸 조원의 조부인 조익

7) 청운동에 위치하며, 경복 고등학교 안에 [운강대]라는 각자가 남아있다. 조부 조익의 사적에 보면 [만년수이거한성지북창의동가재경복궁신무문외이시거(晩年遂移居漢城之北彰義洞家在景福宮神武門外而始居)]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서 조원의 조부 때부터 이곳에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복 고등학교 바닥에서 돌이 나온 것을 맹주천 교장선생님이 흔적을 없애지 않고 잘 세워 놓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때부터 살아왔다. 조원이 희정, 희철, 희일, 희진 네 아들을 두었는데, 희정 희철 두 아들을 임진왜란 때 잃었다.[8] 집 근처 마을의 입구가 되는 쌍홍문터는 조원의 두 아들을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임금이 내린 쌍정문이 있던 곳인데,오늘날의 효자동의 유래가 거기서 생겨난 곳이다.

조원과 옥봉이 살았던 운강대 터(현 경복고)

효자동 쌍홍문 터

2. 그대를 사랑하는 일이 바로 시 이옵니다.

옥봉의 부친은 이봉[9]으로 그는 양녕대군 이제의 고손자이다. 정철·이항복·유성룡 등 문장가와 교유하며 문장가로 이름을 떨치던 인물이었고 의병장이기도 하였다.
옥봉[10]은 그런 부친에게서 서녀로 태어났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

8) 현 효자동의 유래가 조원의 두 아들이 임진왜란 때 피해가다가 길에서 왜적을 만나 어머니를 비호하려다 목숨을 잃어 선조가 그 효행을 기리기 위해 旌閭(紅門과 旌門)를 내려 준데서 유래되었다. (효자동 38-2, 미래인재교육개발원 길에 쌍홍문(雙紅門)터라 2016년 서울특별시에서 세운 것이 있다.) 쌍효잣골, 효곡이라고도 불렀다.

9) 이봉: 양녕대군의 후손으로 젊었을 때는 시류들과 어울리며 한량의 날들을 보내다 임란을 만나 정철(鄭澈)·이항복(李恒福)·유성룡(柳成龍) 등과 함께 학문에 힘써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조헌(趙憲)·정경세(鄭經世) 등과 의병을 규합, 험준한 요지에 진을 치고 적군의 후방을 교란하여 물리쳤다. 1595년 사헌부감찰에 발탁, 이듬해는 옥천군수로 나아가 부호들의 창곡을 풀어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하였다.

10)옥봉 이씨가 남긴 시는 모두 32편인데 1704년(숙종 30)에 조원의 후손인 정만에 의하여 『가림세고(嘉林世稿)』의 끝에 부록으로 넣은 것이 오늘날까지 전하게 됐다. 옥봉 이 씨의 시는 거의 대부분 이별을 주제로 읊은 시들로 그 가운데에 「규정(閨情)」과 남편에게 보낸 「증운강(贈雲江)」 등이 대표 작품이다. 허균(許筠)은 『학산초담(鶴山樵談)』에서 옥봉의 시가 매우 밝고 강건하여 자못 부인의 화려하게 꾸민 말이 아니라 했다. 『성수시화(惺叟詩話)』에서도 그녀의 시는 맑

지 않다. 옥봉은 서녀였음에도 부친의 사랑을 흠뻑 받으며 자라났다. 옥봉이 태어난 해는 1550년 전후로 추정 해볼 수 있다. 용모도 예뻤지만 총명하고 영리하여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 이상이었다고 한다. 이봉이 기이하게 여겨 글과 시문을 가르치면서 번역해 보라하면 사물을 통찰하는 깊이가 남 달랐다.

옥봉이 성장하여 결혼 할 때가 되어 혼인 말이 나오자 옥봉은 문학적 명망이 높이 뛰어난 남자를 구하여 시집을 가고자 했다. 그 아버지가 딸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그러한 인물을 구하려고 애를 썼으나 찾지 못했다. 부친이 교류하는 손님이 오면 합석을 시키곤 하였는데, 그 대화 속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 가슴에 품어 두었으니 진사시에 장원으로 합격한 조원이란 선비였다.

딸로부터 그 남자의 소실로 가고 싶다는 소리를 들은 아버지 이봉은 조원을 찾아간다. 그러나 조원으로부터"나이 적고 명망 있는 관리가 어찌 번거롭게 소실을 두겠느냐"며 단번에 거절을 당한다. 단정하고 반듯하나 풍류기질이 적던 조원의 성품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거절을 당한 이봉은 포기하지 않고 평소 교류가 있던 조원의 장인 이준민을 찾아간다. 이준민의 처가 조식의 누이로 조원은 그래서 조식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준민은 사위에게 "이런 일에 거절을 하는 것은 대장부다운 행동이 아니라"면서 사위를 설득하고 딸에게도 이해를 시킨다.

이때 생각나는 사람이 잠시 후에 세상에 올 조광조이다. 조광조가 서당에 다니던 때 그 모습을 보고 아전의 딸이 사랑에 빠져 상사병이 걸려 죽게 되었다. 아전의 아비가 조광조의 부친을 찾아가 하나밖에 없는 딸자식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한다. 이에 조광조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남자가 소실 하나쯤 들여도 크게 어긋나는 일이 아니니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니, 대쪽 같은 조광조는"규중의 처녀가 부모의 말에 의하지 않고, 사사로이 남자를 엿보아 음란한 마음이 발동했으니 마땅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며, "아버님은 자식을 예의범절로 가르치심이 마땅하거늘 어찌 소자에게 음탕한 여자를 첩으로 두라하느냐"며 단번에 거절했다고 한다.

그 후 조광조가 능주에 귀양 가 사약을 받아 죽었는데 사람들은 그때 그 처녀의 원

고 건장하여 부녀자의 화장 같은 꾸밈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시상의 전개가 여성답지 않고 뛰어남을 매우 높이 칭찬했다.

신흠(申欽)은 "근래 규수의 작품 중 승지조원의 첩 옥봉 이 씨가 제일이다."라고 높이 평가했으며, 홍만종(洪萬宗)은 『시평보유(詩評補遺)』에서 「춘일즉사시(春日卽事詩)」가 만당(晩唐)의 품격이 있다고 칭찬했다. 그리고 『소화시평(小華詩評)』에서는 "(사람들이) 조원의 첩 옥봉 이 씨를 조선 제일의 여류시인이라 일컫는다."고 했다. 옥봉 이 씨는 허난설헌(許蘭雪軒)과 함께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여류시인으로 이미 당대에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이 붙어 그랬다고들 하였다고 한다. 그런 일에 비교해 본다면 옥봉은 운이 좋다고 해야 할까, 일단 조원의 소실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날을 잡아 옥봉을 데려왔는데 그 모습이 재주처럼 빼어났으므로 이준민도 기이하게 여겼다 하며, 빼어난 재주에 빼어난 용모 보통 여인들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다. 조원은 그런 옥봉에게 빠져들 만도 하였을 텐데 결혼의 조건이 시를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던 조원의 면모를 볼 수 있다. 그런 면이 진사시에서 장원을 하고 나름의 삶을 열어갔겠지만 이미 결혼 할 때부터 옥봉은 조원을 뛰어 넘을 수 없었다.

옥봉이 조원의 별채에 들어가 살 때 큰 어려움은 없었다. 어차피 소실 하나쯤 두고 사는 것이 그 시대의 흐름이었고 본처가 허락을 하였기 때문이다. 옥봉이 들어가면서 엄격하던 가정 분위기가 한결 부드럽고 따듯해졌다. 그중 특히 3남이면서 나중 장자가 되는 희일이 어느 날 글 읽는 모습을 보고 한없이 사랑스러웠던가 “어린 나이 남다른 재주 기특하여/ 동방에 우리 모자 이름 냈구나/ 네가 붓을 잡으면 바람이 놀라고/ 내가 시를 지으면 귀신도 곡하였지”라는 적자에게 준다는 시를 짓기도 한다.

그러다가 매화꽃 피는 봄날엔 “버들숲 강머리에 말 울음소리/ 반쯤 깬 채 시름에 겨워 누각을 내려갈 때/ 님 그리다 여윈 얼굴 거울 앞에 다가앉아/ 매화 핀 뜰 앞에 매화는 벌써 떨어지랴 하놀적에/ 깜짝놀래 들으니 나무에 까치 우는데/ 허사겠지만 거울속의 고운 눈썹 그려 보메라”는 등의 여인으로서 임이 오시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담뿍 담아 시를 쓰기도 한다. 아마 조원을 기다리면서 평생 이런 날들 속에 살지 않았을까 한다.

자신이 만족할만한 대화가 통하는 남편을 만난 옥봉은 정치와 사회 현실에 대한 응시와 비판도 보통 여인 같지 않은 여인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조원이 괴산군수에 이어 삼척부사로 나갈 때도 지를 지어 위로하기도 한다.

비록 몸은 임금 곁을 떠나있지만 마음만은 늘 임금을 그리워하고 나라를 걱정한다면서. 영월을 지나면서 영혼이 구름처럼 떠도는 어린 노산군을 위하여도 시를 한수 남기기도 한다. 같은 전주이씨 왕손의 후손으로서 애닮음이 가슴을 아리게 했을 것이다. 그런 의협심도 있었던 감성이 살이 있던 여인이었다.

더 좋은 날들이 올 것이라고 외직의 날들을 보내며 살아온 그들에게 회오리는 끝없이 밀려왔다. 당파싸움이 끝없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성주목사를 끝으로 관직을 제수받지 못하고 죽은 듯 지내던 날들 속에 조원과 옥봉을 갈라놓는 운명적 사건이 발생한다.

외직생활을 접고 효자동 본가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머리가 헝클어진 시골아낙 하나가 실성할 듯 들어와 꿇어 엎뎠다. 파주에 있는 선산을 지키며 위토를 부쳐 먹고 사는 산지기의 처였다. 열심히 살아 농가의 큰 재산이라 할 만한 소 한 마리를 마련해 농사짓는데 잘 쓰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남편이 소도둑으로 몰려 관아에 끌려간 것, 소장 하나만 써주면 풀려날 것 같다며 삶이 끝나듯 울어대는 여인의 모습은 한마디면 피할 수 있는 일일 것도 같아 붓을 들었다. 요즈음 집안 분위기로 봐서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라고 판단도 들었다. 작은 티끌 하나에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국이라는 걸 눈치 채고는 있지만 그 시골아낙의 남편에 대한 그리고 살아 내려는 여인의 모습이 옥봉의 마음을 움직였다.

옥봉은 의협심이 발했다. 붓을 들었다. 그것이 자신의 절명시임을 그때 옥봉은 알았을까. 전생의 악연이 있다면 그 여인과 옥봉은 무슨 운명이기에 그렇게 만나야 했던 것일까. 살아있기에 할 수 있는 생각이고 행위였다. 자기를 들어내기 위해 쓴 것도 아니요, 억울한 산지기 부부의 누명을 벗어나게 하려는 의협심이요 함께 살아가는 인륜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한 글자만이라도 써달라던 산지기 아내는 그것을 들고 돌아갔다. 그때 써 준 위인송원이라는 장사狀辭의 내용은 이렇다.

위인송원爲人訟寃

세숫대야를 거울로 삼고
물로 기름 삼아 머리를 빗습니다,
이 몸이 직녀가 아니온데
제 남편이 어찌 견우이겠습니까?

그 시를 받아든 형조의 당산관은 뛰어난 탄원서에 감탄해 산지기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며칠 후 파주목사가 조원의 집에 나타났다. 아녀자의 글을 내돌려 자기를 곤란하게 했는가를 심문하듯 따지러 온 것이다. 할 말을 하고 싸늘하게 돌아서는 모습은 평소 알고 지내던 파주목사가 아니었다. 더 큰 회오리가 닥쳐올 것 같았다. 조원은 화를 삭이며 옥봉을 불렀다. 가뜩이나 힘든 세월 죽은 듯 지내도 불안한 이때에 관의 일에 관여를 하여 남들의 이목을 번거롭게 한 것에 조원은 모든 결정을 한 듯했다. 친정으로 가 달라는 것이었다.

이때가 임진왜란 일어나기 조금 전으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다. 옥봉으로선 짧지

않은 날들을 살아온 집을 떠나야 했다. 그때에 쓴 시인 듯 “내일 밤이야 비록 짧고 짧을 지라도, 오늘 밤만은 길고 길었으면, 닭소리 들리고 날이 밝아 오니, 두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다.”는 별한의 시가 전해온다.

좋을때도 힘들때도 옥봉은 하고픈 말을 시로 썼다. 나온 후의 아픔도 시로 썼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별의 한이 병이 되어 술로도 약으로도 달랠 길 없다는 밤마다 이불속에서 흘리는 눈물이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찬 물 같다.” 했으니 얼마나 많은 밤을 회한 속에서 보냈을지 상상이 간다.

조원의 집에서 나온 옥봉은 뚝섬 한강나루 근처 초막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광릉진 근처는 하얀 마름꽃만 가득하다’는 시가 그것을 말해준다. 내쳐진 이후의 삶이란 옥봉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을 테고 점점 종적마저 사그라져 간다.

그러나 옥봉이 사랑 시만 쓰다가 간 여인은 아니었다. 여진족을 물리치는데 성과를 올린 신립장군에게 보내는 시도 있는 것을 보면 시사에도 눈을 돌릴 줄 알았고, 그런 글을 쓸 만큼 의협심도 있던 여전사이기도 했던 여인이었다. 이런 시도 쓴 때문인지 허균은 옥봉의 시를 가리켜 “맑고 장엄하여 아녀자의 연약한 분위가 없다”평했고 홍만종은 『소화시평』에서 “국조제일의 여류시인”이라고 극찬하였다. 영의정을 지낸 신흠(1566~1628)은 그의 시 비평집인[청장연담]에서 그녀가 남편 조원이 삼척부사로 나갈 때 죽서루에 둘러 남긴 시를 보고 “고금의 시인 중에 누구도 이에 비견될 시구를 지은 적 없다.”며 극찬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으로서 의협심과 때론 웅혼한 기상도 있었던 옥봉은 어떤 일 때문이었던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여야 했다.

- 나를 두르고 떠나가는 -

옥봉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의협심에서 써준 시 하나가 잘못되어 남편으로부터 내침을 당하였다. 왕족의 서녀로 태어났지만 부친의 사랑 속에서 자라 소실일망정 당시 내로라하던 남편을 만나 자기를 승화시키는 삶을 살아온 날들이었다. 그런 그녀가 일생에서 누구하나 그녀의 편이 되어줄 수 없는 코너에 내 몰렸을 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 자기의 온 마음을 표현하고 써보는 시 이외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옥봉은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썼다. 그러다 보면 자기의 날들이 다시 이어질 것이라 생각에서 그런 건 아니었다. 그냥 그것이 세상에 살아있음으로 그녀가 오롯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렇게 날들이 흘렀다. 그러다가도 때론 본연의 심성에서 우러나오는 여인으로서 감성의 순간을 표현해 보기도 하였다. 그것이 그녀의 고운 마음과 본성이 엿보이는 백미의 시 자술, 혹은 몽혼이라는 글이다.

자술自述(몽혼)

안부를 여쭈노니 요즈음 어떻게 지내시는 지요
달빛이 창가에 비치니 이 몸 너무 한 스럽습니다
꿈속의 넋이 다니는 길에 발자취가 있다면
님 계신 문 앞 돌길은 아마 모래 길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승에서 그녀의 운명은 고것만큼 이었을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 들어오는 사건,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다. 옥봉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했다. 살아온 흔적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이와 기름을 준비했다. 살아온 날들에 남겼던 분신들을 써 내려갔고, 그곳에 기름을 먹였다. 그 혼의 분신과 시간들을 몸에 감고 동아줄로 칭칭 동여맸다. 자신을 스스로 염을 한 것이다. 그리고 시커멓고 허름한 옷을 관 짝처럼 덮어쓰고 움막을 나와 한강가로 걸어갔다. 자기를 있게 해 주던 모든 인연을 떠나 자기가 온 본래의 곳으로 떠나야할 순간이 온 것이다. 지수화풍 우주의 기운을 받아 부모의 몸을 빌려 태어난 곳,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육신은 죽어야 했다.

이제 숙원의 이름으로 옥봉의 이름으로 살아온 모든 것의 인연을 끊고 떠나야할 순간이 온 것이다. 아무 염원도 없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듯 물위로 던진 몸은 빙그르르 몇 바퀴 돌다 물결 따라 떠내려갔다. 한 여인의 모습으로 태어나 오직 한 남자를 사랑했던 그녀는 자기 업을 옥죄이는 이승의 밧줄을 스스로 묶고 길을 떠난 것이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은 상태로 길을 떠났다. 차마 버리고 갈 수 없는 정념의 결정체는 그녀가 안고 가야할 것 이었다. 그렇게 혼자 떠나갔으므로 그 일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다. 쑥대밭으로 변한 조선의 전쟁은 6년간이나 계속되었다. 살아남기 위해 모두 너무나 정신이 없었다.

- 가벼워지자 닿은 세계 -

전쟁 중 철저히 혼자 죽어간 옥봉은 사람들 눈에 띠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종이를 두르고 죽은 여인의 주검하나가 한강변의 강화 근처라는 말과 오두산 밑의 조강, 중국의 어느 해안가에서 건져 올렸다는 말이 나돌았으나 지금 그녀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정

념이 강하면 그냥 흩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죽은 사람의 염원은 하늘도 움직이는가. 옥봉의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회자되고 있다.

그것은 허난설헌과 옥봉이 시를 교류하던 인연으로 허균으로 인해 중국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설과 이수광이 지봉유설[11]에서 밝혀 놓은 이야기와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합쳐진 결과이다. 그중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은 조원이 1595년 52세로 세상을 떠나고 그의 셋째아들 조희일[12]은 26세 되던 1601(선조34) 년 아버지에 이어 진사시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조희일은 접반사가 되어 신의주까지 간 적이 있다. 그때 중국에서 온 사신으로부터 옥봉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녀의 시가 소개된 문헌을 받았던 것으로 본다.

후에 임천 조 씨 발행 [운강공 사적]이라는 책과 조원의 고손인 조정만이 쓴 [가림세고]에는"고조부 운강공의 소실에 이 씨가 있었으니 호는 옥봉으로 왕실의 후예인 이봉의 딸이었다. 천성이 총명하고 시사에 능하고 일세에 회자됨은 물론 중국에까지 명성이 떨쳤으며, 그가 지은 시가 명나라의 여러 책에 올랐다. 후에 임진왜란을 만나 마침내 절의를 지키다 죽었다."는 기록과 가림세고 부록에 실려 있는 이옥봉 행적에는"비록 쫓겨났어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단속해 전란속의 어려움을 이기고 보전하여 마침내는 천하 사람이 아름답다 하였다. 비록 그의 삶은 불행했으나 죽음은 불후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녀의 존재를 확실히 인정하고 있으며 선조와 연결된 이야기이므로 세월이 흐른 후에 다루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시는《명시종明詩綜》,《열조시집列朝詩集》,《명원시귀名媛詩歸》등 중국 여류시집에 작품이 전해지고, 시집 한권이 있었다 하나 시 32편이 수록된 옥봉집이《가림세고》[13] 부록에 전할 뿐이다.《역대여류한시문선》에 전편이 번역되어 실려 있다. 초기의 작품은 서정적인 내용과 남편을 위로하는 여인으로서 내조의 아름다운 시들이 많고 후반의 작품들은 조원과 헤어져 살게 되면서 이별, 한 등의 작품이 주를 이룬다.

이글을 써보려 맘을 먹고는 옥봉과 조원이 살았던 곳을 가 보았다. 오늘날의 경복고 자리, 작은 돌에 쓴 운강대라는 글씨가 있었고, 터를 닦다가 나온 그것을 맹주천

11) "우리나라가 예의의 나라로서 중국에 알려지고, 박학하고 아존(雅尊)한 선비가 뒤를 이어 나왔건만 전기가 없음이 많고, 문헌에 찾을 만한 것이 적어 한 두 가지씩을 대강 기록하여 잊지 않도록 대비하려는 것이 진실로 나의 뜻이다."라고 저술동기를 밝히고 있다

12) 조희일(趙希逸, 1575~1638): 선조~인조 연간에 활약한 문신이자 서화가. 조원의 아들. 예조참판, 형조참판, 승문원제조, 경상감사 등을 지냄. 죽음집, 경사질의 등 10여책의 저서를 남김. 아버지 조원에 이어 두 번째 장원으로 합격을 하였으며. 그 후로 조희일의 아들 조석형, 손자 경망, 증손 정만까지 5대에 걸쳐 진사시에 장원으로 합격하는 집안이 된다.

13)『가림세고』는 조정만이 고조부 조원· 증조부 조희일· 조부 조석형의 3세의 시문을 합하여 상중하 3편으로 만들고, 권말에 옥봉의 시를 부록하여 1704년(숙종 30)에 간행한 시문집이다.

교장선생님께서 현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다. 뒤로 뵈는 백악산과 옆으로 다가오는 인왕산 풍경이 그림이다. 그 옛날엔 더 절경이었을 것이다. 후에 그 옆에 살던 겸재 정선이 인왕산 그림을 그리던 자리가 이곳이라고 했다. 나오다 되돌아보니 옥봉과 조원의 사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느티나무 한그루가 듬직하게 자리하고 있다. 저 나무는 알고 있을까, 고왔던 여인 옥봉이 별당에 살았던 많은 이야기들을-

Ⅲ. 옥봉 조원의 품으로

우리의 답사가 도화선이 되어 임천 조 씨 군자감정파 문중에서는 옥봉 할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2014년 3월 임천 조씨네서는 선조님들의 유업에 유난히 관심을 가진 분이 회장이 되었고, 족보도 새로 만들어야 해서 족보전문 업체에 맡기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풀리려고 그랬는지 족보를 맡긴 가승미디어가 전주이씨가 하는 족보회사였는데, 선원보[14]에도 기재가 되어있는게 사실이고 옥봉의 부친 이봉과 조원의 장인 이준민 사이에 말이 오가 성사가 된 사실이 엄연하게 나타나는 일인데 이숙원을 이대로 둘 것이냐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다.

집안에서는 자료를 수집했고 그런 안건을 총 회의에 붙여보았더니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소실인데 하던 사람들도 전말을 알고 나서는 '우리가 너무 했구먼' 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고 한다. 후손으로서 누가 그 일을 마다하겠는가, 그래서 묘역을 정비하고 옥봉의 단을 만들고 신주에도 모시기로 한일은 비록 몇 년을 두고 이루어진 일이긴 해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다. 그렇게 정하고 나자 모든 일들이 계획이나 한 듯 잘 풀리더라고 했다.

14) 선원보: 전주이씨 족보

봉분을 만들기 전 절을 하고	2017년 5월 11일 위패를 안장 하였다.

그리고 2017년이 되었다. 옥봉의 묘단이 세워졌고 비석을 세울 것인데 그 비석의 비문을 감수하는 감수위원으로 그곳을 찾아갔던 우리들 이름을 넣을 것 이라고 했다. 책을 쓸 때 감수위원으로 이름이 오르는 것은 보았다만 세 여인의 이름이 한 여인의 비석에 새겨지는 일은 처음 본다. 파주에서 향토사회원으로 활동한지 15년이 되도록 이러 일은 처음이며 아마 앞으로도 있기 힘든 일 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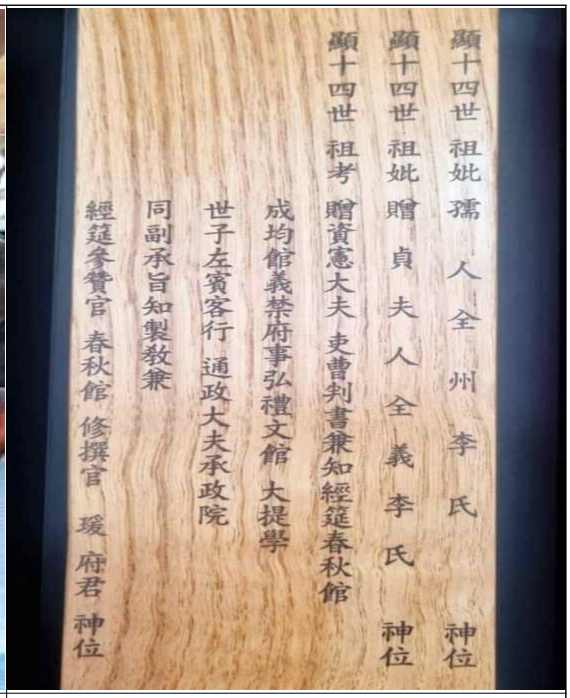
이글을 쓰면서 처음 그곳을 찾아가던 순간부터의 장면들이 펼쳐지면서 살아가는 한 순간 한순간이 역사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세상은 산 사람만이 아닌 먼저 살다간 사람들의 영혼과도 교류하며 사는 것 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우리는 얼떨결에 옥봉이란 여인과 함께 하게 되었지만, 구천을 헤매던 한 여인이 그토록 돌아가고 싶었던 남편의 신주 곁에 올려지던날, 세우비라도 내리려나 했으나 날씨도 그들의 만남을 축하 해주는 듯 5월의 날씨는 화창하고 좋았다. 우리는 덩달아 좋았다.

2017년 5월 11일 조원의 묘 앞에 만들어진 옥봉 묘단의 모습

옥봉 묘단의 비석 뒷면: 감수- 파주향토문화연구소(이동륜/ 오순희/ 성지오)

그런 일들이 진행되려면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지켜보았다. 도로가 나면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묘역정비를 하고, 군부대에서 오랜 기간 무료로 활용하던 사격장에 대한 사용료를 내겠다며 엄청 큰 목돈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작은 사당이 있었지만 한옥으로 된 사당을 새로 짓는다는 건 엄두를 못 내던 일이었는데, 옥봉의 묘단을 만들고 합사를 하면서 모든 일들이 준비라도 된 듯 술술 풀리더라는 것이다.

조원과 옥봉의 신주가 모셔진 임천 조씨 군자감정파 사당의 모습. 2020년 완공

<table>
<tr>
<td> </td>
<td> 
</td>
</tr>
<tr>
<td>2021년 3월 16일 사당에서 위패봉안식</td>
<td>조원의 신주에 함께 오른 옥봉의 신주</td>
</tr>
</table>

회의를 거쳐 2019년 사당이 지어지기 시작하였는데 2년에 걸쳐 완공이 되어갔다. 완공이 다 되어갈 즈음 나는 옥봉을 찾아다니던 인연으로 내게 들어와 있는 그 사당에 놓으면 좋을 물건하나를 드려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것을 새로 지어진 사당에 불쑥 드리기도 뭣하여 친숙해진 옥봉 시인의 묘단 앞에서 하였다. 파주역사로 동화쓰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답사를 갔던 길에 드리고 왔는데 그것을 홍보에 싸놓고'좋은 집에 가서 귀히 대접받고 살아라'하는 마음으로 떠나보냈다. 옥봉이 그곳에 들어가면서 생긴 그 일 또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Ⅳ. 맺음말

막상 이 일을 써보아야겠다고 결정을 하고나니 생각만 많을 뿐 정리가 되지 않았다. 오래된 이야기들을 꺼내오는 것도 쉽지 않았고, 400여년이 더 된 한 사람의 한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야할지 두서가 없었다. 괜히 쓰려고 했나 후회도 되었고 그러면서 해원상생解冤相生이 된 이야기이니 밝고 가볍게 쓰고자 얼개를 얽어 보았다. 그러나 긴 세월을 돌고 돌아 갈 곳으로 돌아간 이야기여서 였을까 이것만 잡고 앉으면

생각에 생각이 밀려오고 붙잡고 앉아있기만 한 날도 있다.

그건 현재 이승에서 살고 있는 내가 풀지 못한 인연들의 고리가 오버랩 되면서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젠 8월이다. 어떻게든 옥봉과의 이야기들을 떠나보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러다 다시 들어가 보니 마감 날자가 6일이다. 이틀 남았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솔직히 이 이야기와 함께 하면서 사람의 인연, 내가 만든 인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 본 날들이었다.

옥봉의 이야기는 분명 해피엔딩이다. 적어도 그토록 사랑하던 님의 신주에 오르고 사당에 어엿이 입성한 지금은 말이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기원해주는 그 마음들이 모여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이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보니 옥봉은 참 멋진 여인이었다. 자기의 한계를 넘어 내면화 시키며, 자기가 선택한 한 사람과의 사랑을 가꾸어 나간일, 죽음을 택하는 그 일까지 무엇 하나 확실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런 확실한 에너지를 가진 그녀가 현세를 살고 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해본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을 믿는다. 그런데 그 간절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걸 사람들은 알고도 모른다. 아니 모르다가 알아 간다.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나는 왜 세상에 왔는지 모르겠다.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며 살다가려고 왔다하고 나를 가볍게 만든 후에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세상에 온 이유라고도 한다. 하지만 그 가벼움은 인연의 부대낌을 겪은 무거움 속에서 오는 세계일 터이니 좋은인연 좋은행로 속에 그 무거움과 살다가기를 바랄뿐이다. 400여년이 세월이 흐른 후 남편의 신주에 함께 오르기까지 돌고 돌아온 여류시인 옥봉 이숙원! 이제 단정하게 잘 지어진 사당에서 편히 쉬기를 기원하며 글을 마무리 한다.

참고문헌

이동륜, 「가림세고와 파주의 연관성 조사」, 「파주연구」2009, 29쪽

조진석, 「조선중기 여류시인 이옥봉 고찰」, 「파주연구」2018, 147쪽

이종문, 「李玉峯의 작품으로 알려진 漢詩의 作者에 對한 再檢討」, 논문, 2011

윤호진, 「雲江 趙瑗의「三都賦」硏究」, 논문, 2014

강명혜, 「실존과 욕망의 시학, 이옥봉 삶과 문학」, 논문, 2018

은미희, 「나비야 나비야」, 2009, 동화출판사/ 문학의 문학

장정희, 「옥봉」, 2020, ㈜도서출판 강